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이 연변 등 길림성 돌아본 까닭은

만주에서 찾는 미래먹거리... 北 접경지 금융 선점효과도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새로운 미래'

길림성·홍콩·마카오 교류회 초청받아
베트남·싱가포르·홍콩 등 방문 꾸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해외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불망위(安不忘危)'의 각오를 되새기며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만리장성 등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편안한 가운데서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는 각오를 밝힌 그는 순이익 2조원에 달하는 하나금융그룹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조용한 2인자'에서 하나금융그룹의 '백년 대계'를 설계하는 김 회장. 그에게 해외 시장은 두려움이자 설렘이다. 3연임에 성공하면서 덩치 큰 글로벌금융사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하나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8일 하나금융그룹은 중국 길림성 정부와 전면적인 업무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신남방정책과 함께 글로벌 성장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에 부응하고, 북한의 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길림성과 지속적이고 밀접한 협력관계를 이어온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6일 길림성 정부가 주최하는 '제1회 길림성·홍콩·마카오 및 국제 금융협약 교류회'에 초청받아 참석해 밀접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길림은행 정보상(장바오상) 동사장(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길림성 오정평(우정평) 상무부성장,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길림성 경준해(정준하이) 성장, 길림은행 윤규섭 부행장, 길림성 풍희량(풍시리양) 비서장, 길림성 창지투 반공실 최군(추이첸) 주임, 하나(중국)유한공사 임영호 법인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교류회 참석에 앞서 중국의 훈춘시, 연변자치주, 장춘시 그리고 러시아 자투비노 항구 방문을 통해 '창지투 개발·개방 선지구' 일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길림성과의 협력확대 방안을 구상했다.

특히, 이 날 파음조로(바인차우루) 길림성 서기 및 경준해(정준하이) 성장, 강치영(지양쯔잉) 연변주 서기 등 고위급인사와의 회견을 통해 상호발전방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폭넓은 상호이해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KEB하나은행을 통해 길림성 정부와 '상호협력 및 발전, 공동번영'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중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날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KEB하나

은행과 길림성 간 ▲동북아지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 추진에 대한 금융협력 ▲한중 국제협약 시범구'의 발전 및 성공을 위한 지원 ▲창지투 지역인 장춘(창춘), 길림(지린), 두만강(두먼) 개발과 관련된 금융업무상의 협력추진 및 ▲두만강 지역 개발 관련 국제금융포럼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길림성과의 전면적 업무협력 추진을 통해,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모드가 조성되고 향후 북한 개방이 본격화되면 북한과 중국 내 북한 접경지역에서 금융 관련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의 중국법인인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의 임영호 법인장은 "이번 길림성과의 MOU를 통해 길림성의 창

지투 지역 개발에서 금융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길림성은 중국국가발전 전략 중 하나인 '신동북 진흥계획'과 '일대일로' 전략, 러시아의 '신동방 개발계획' '그리고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교차되는 전략적 요충지다"면서 "향후 한국의 부산을 거쳐 북한의 나선, 중국 길림성의 창지투 개발개방 선지구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경제회랑 건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해외에 하나금융의 미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2025년까지 그룹 내 글로벌 부문 이익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하나금융그룹은 전 세계 24개국에 총 174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규모가 큰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지속적 현지화추진을 통해 급변 상반기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100%이상 성장한 400억원 이상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해외 행보도 바

빠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중국과 베트남·일본·싱가포르·홍콩 등을 쉬지 않고 다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전략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인도·베트남·필리핀 지역을 거점지역으로 키워 아시아 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외 M&A에도 직접 발품을 팔았다. 베트남 4대 국영상업은행인 베트남산업은행(BIDV)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 김 회장은 올해 초 비공식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했고 베트남 경제부총리까지 만나는 등 공을 들였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체크카드 빌려주기, ‘불법’입니다”

금감원 Q&A

Q 요새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겨우 3일만 빌려줘도 40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도 하고, 마침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이 들긴하지만 한번쯤 빌려주면 어떻게 자꾸 고민이 됩니다.

A 최근 교묘한 수법으로 대표통장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중 불법업자들이 통장을 언급하지 않고 체크카드 등을 빌려달라고 광고하고 사례가 눈에 띕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있지만,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가 불법에 포함된다는 인식

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사고파는 것도 불법이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다른 사례로는 대표적인 유형이 불법업자들이 유통회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사칭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주로 영업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감면받거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겠다고 카드 등을 빌려줄 것을 광고합니다.

또한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를 도입했다거나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며 대여자를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수량 한정”, “조기마감”, “투잡”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유재희 기자

KB국민은행 국내 최초 'KB 글로벌 구매론' 출시

KB국민은행은 8일 기존 송금방식(T/T) 무역대금 결제 방식에 신용장 방식이 가진 장점을 결합한 'KB 글로벌 구매론'을 국내 은행 최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송금방식 무역대금 결제 방법은 결제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출업체가 만기 전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KB글로벌 구매론은 국내 수입기업이 해외 수출기업에게 물품을 받는 즉시 은행이 해외 수출업체에게 수입대금을 선



지급해 해외 수출기업이 결제일 이전에 자금 활용이 가능해졌다.

/안상미 기자

IC단말기 미전환가맹점 카드거래 못한다

MS방식 단말기 보안상 문제 많아
20일까지 교체 신청만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오는 21일부터 IC 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 카드거래를 전면 차단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단말기 전환을 완료했고,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영입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 MS방식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가맹점으로 인한 신용카드 사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하고 지난 2015년 7월 21일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뒤 가맹점에 등록단말기(IC단말기) 사용을 권고해 왔다.

현재 IC 단말기 전환율은 95.1%로,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단말기를 전환한 상태다. 당국은 오는 20일 기준 전체 가맹점 97

~98%가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당국은 21일부터 카드거래 차단된 미전환 가맹점이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가맹점의 영업상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달 20일까지 IC단말기 교체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교체시점까지는 기존 단말기 이용 가능케 한다. 하지만 현장 방문시 가맹점이 단말기 교체를 거부(허위 교체 신청)하면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NH농협은행 “팔로어와 떠나는 농촌체험여행”

NH농협은행은 지난 7일 강원도 춘천 원평팜스테이마을에서 SNS팔로어 80명과 함께하는 농촌체험여행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현재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매달 2회씩 농촌체험여행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농업·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했다.

농촌체험여행 이벤트는 농협은행이 펼

치고 있는 ‘농가소득 5000만원 국민공감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됐고, 매월 약 30~80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강릉, 정선, 서천 등의 지역별 테마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여행에는 최창수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을 비롯해 SNS 운영진이 함께 참여해 맨손송어잡기, 방울토마토 수확 등의 체험을 통해 고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카드 ‘신한FAN’ 가입고객 1000만 돌파

신한카드의 디지털 플랫폼 신한FAN이 금융사 최초로 가입고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3년 4월에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앱카드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뒤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해 신한FAN으로 개편했다. 5년 만에 총회원이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간 결제 이용금액도 2013년 3000억 원에서 지난해 7조2000억 원으로 20배 넘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 4조1000억 원을 포함한 누적 이용금액은 23조 원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회원 10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다음달 10일까지 여러 사은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FAN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